청소년의 배경변인과 가족건강성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조미라 · 류점숙 · 이선정 · 신효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서영대학 아동보육과 부교수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강사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A Study on the Effects of Background Variables and Family Strengths Perceived Adolescents on Self-Concept

Mi-Ra Cho · Jom-Sook Ryou · Seon-Jeong Lee · Hyo-Shick Shin*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hild Educare, Seoyeong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search traits of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and self-concept and to examine effective variables influencing on adolescents' self-concept.

The subjects were the 498 middle school students in JellaNamdo.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Std, Cronbach's α ,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PC WIN 21.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scores were higher than median(3.00). Especially, 'financial stability' was highest and 'communication and family bonding' was lowest.

Second, Self-concept were influenced by role sharing and problem solving, satisfaction with friend, financial stability, school grade, communication and family bonding, and father's age. And the adolescents' self-concept were explained about 54% by these variables.

Key words:

논문접수일 : 2014. 10. 6., 심사완료일 : 2014. 11. 12., 게재확정일 : 2014. 12. 16.

I.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로 빠른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지, 정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정옥분, 2005).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의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함에 따라 청소년은 변화와 선택, 갈등이라는 시기적 이슈와 맞물려 있다. 또한, 입시 위주의 획일화되고 경쟁적인 교육 풍토 속에서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와 자신에 대한 불안 등으로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올바른 자아개념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어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자아개념 확립과 더불어 정서적인 안정, 현실적인 지각, 기능과 책임, 자기의 객관화, 정서적 독립 등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자신감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최유리 외, 2014). 긍정적 자아개념은 학습성취, 진로선택, 자기통제력, 유연성, 적응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아개념과 사회적 적응력과의 관계에 있어 안정적, 긍정적 자아개념은 청소년의 학교적응력은 물론 사회적 적응력과 사회적 참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미혜, 2002).

자아개념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역동적, 순환적 힘을 가진다. 모든 인간은 그의 주변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특히,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은 부모, 교사, 또래 등 중요한 타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아개념은 자신을 둘러싼 변화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태도를 형성하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개인적 성취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하여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적응 능력을 높이지만(강현주, 2011), 반대로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낮은 학습성취, 우울, 비행, 약물남용 등 다양한 문제 행동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한 개인이 자신에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느냐 아니면 소극적, 부정적인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 자아개념은 달라지며,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가꾸어 가는 데 유용한 현실적 적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아개념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리라 본다.

여러 연구들(김순연, 2006; 김은혜, 2013; 임수진, 2002)에서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지각, 신념, 태도로 정의하고, 자아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하위 영역을 신체적 자아, 능력적 자아, 가정적 자아, 사회적 자아, 성격적 자아로 구분한다. 자아개념의 각 요인별 특징에 대해 기술하면, '신체적 자아'는 자기신체에 대한 자신의 견해, 건강상태, 신체적 외모, 지능 및 성적 매력 등을 의미하며, '능력적 자아'는 개인이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해서 가지는 지각이나 신념으로 학습과제나 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자아'는 타인과의 인간간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 점수가 높으면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만 낮으면 소외된 상태이거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성격적 자아'는 도덕적 가치나 자신의 인간됨에 대한 선·악의 의식 등 자기 자신의 윤리적인 면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를 나타낸다. '가정적 자아'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평가를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가정 내 적응에 대한 자아지각을 의미한다(임수진, 2002).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으로 가정, 학교, 사회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 중 정서적인 안정과 인격형성의 기본 틀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임정아, 2005). 특히, 자아개념 형성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일차적인 양육자인 부모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어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은혜, 2012).

가족건강성은 최근 가족연구에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개념으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남영자, 2008)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

에 무엇보다 가족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미국의 가족학자 Otto(1962)를 시작으로 연구되어 온 가족건강성은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건강가족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것으로 가족 내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는 기초를 삼음으로써 가족문제나 기타 병리적인 가족의 특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권대희, 오윤자, 2004). 즉, 가족건강성은 가족들 간에 서로 얼마나 존중하고 애정을 표현하는지, 각자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하면서 가족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지 가족 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며 함께 좋은 시간을 갖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최유리, 신효식, 이선정, 2014). 또한 가족건강성은 자녀의 심리발달, 학업성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건강한 가족의 자녀가 심리발달이 바람직하게 형성되고, 가족의 건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으며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양순미, 유영주, 2003) 가족건강성은 자녀에게 미치는 가족의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필수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소재의 중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개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자아개념에 미치는 배경변인과 가족건강성의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학교에서 교과 및 생활 지도와 함께 가정에서 자녀를 지도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개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배경변인 및 가족건강성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 환경은 학교 교육, 안전, 여가활동, 가족관계, 친구관계, 경제적 여건 등으로 다양하며, 가족, 학교, 지역사회, 국가의 관심 및 선도 속에서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이은아, 2014). 이에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가족관계, 학교생활, 여가활동, 친구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되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자아개념을 살펴보면, 이주연(2005)의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의 하위 영역 중 일부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인 자아개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고, 김은혜(2013)의 연구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송수지, 남궁지영, 김정민(2012)의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다고 하였고, 정병찬(2002)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자아개념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등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자아개념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모의 교육 정도, 직업, 수입 등이 중류계층 이상인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나타내었다(박찬섭, 2009). 또한,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과 생활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합리적인 언어모형과 역할 모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진희, 김안국, 2010).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관계와 활동이 넓어지며 또래집단의 영향력도 자아개념 발달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래집단은 소속감을 제공하고 상호작용 속에서 참여기회와 동일시를 제공하는 안전한 환경으로 자신을 비교하며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또래집단을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게 된다. 김희경(1990)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상 교우집단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해지고 절친한 친구의 신뢰와 승인 여부에 따라 자신을 믿을만 하고 존재 가치가 있으며 중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교우관계는 건전한 정서발달과 자아

개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하였고, 이은아(2014)의 연구에서도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업성적의 성공적인 성취여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여 학업성적이 좋은 경우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혜, 2012; 김희경, 1990). 부모의 존중, 애정과 지지, 수용 및 행동규준의 명확한 한계 제시는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부모의 애정 부족, 과한 비판, 일관성 없는 규율 등은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신나나(2000)는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이 높은 자아개념을 갖는 것으로 밝히면서 청소년기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자아개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가족건강성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살펴본 유미희(2010)의 연구로 제한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족유대, 가치공유 등의 가족건강성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김현주, 2009), 자아존중감(김미선, 2013; 변진혜, 2009), 자아효능감(최유리 외, 2014)이 높다는 연구나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정지영(2011), 강희경(2005)의 연구결과들은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증명하는 결과이므로 자아개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라남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실시되었으며 배포된 600부 중 회수되지 않거나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49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 = 498)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학년 (n = 498)	2학년	250(50.2)	성별 (n = 491)	남	230(46.8)	
	3학년	248(49.8)		여	261(53.2)	
부학력 (n = 458)	중학교 졸업	13(2.8)	모학력 (n = 452)	중학교 졸업	19(4.2)	
	고등학교졸업	203(44.3)		고등학교졸업	207(45.8)	
	대학교 졸업	221(48.3)		대학교 졸업	211(46.7)	
	대학원 졸업	21(4.6)		대학원 졸업	15(3.3)	
부연령 (n = 491)	31-40세	22(4.5)	모연령 (n = 484)	31-40세	92(19.0)	
	41-50세	377(76.8)		41-50세	364(75.2)	
	51세 이상	92(18.7)		51세 이상	28(5.8)	
부 직업 (n = 475)	회사, 공무원	196(41.2)	모 직업 (n = 470)	회사, 공무원	100(21.3)	
	자영업	86(18.1)		자영업	57(12.1)	
	전문직	25(5.3)		전문직	54(11.5)	
	생산/기술/서비스직	103(21.7)		생산/기술/서비스직	71(15.1)	
	단순노무 농임어업	60(12.6)		단순노무 농임어업	28(6.0)	
	가사, 무직	5(1.1)		가사, 무직	160(34.0)	
학업성적 (n = 488)	상	191(39.1)	용돈 (n = 497)	만족	251(50.5)	
	중	169(34.7)		만족도	보통	163(32.8)
	하	128(26.3)		불만족	83(16.7)	
친구관계 만족도 (n = 498)	만족	394(79.1)	부모와의 친밀도 (n = 498)	친밀함	388(77.9)	
	보통	96(19.3)		보통	92(18.5)	
	불만족	8(1.6)		친밀안함	18(3.6)	

2. 조사 도구

1) 배경변인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해당하는 학년, 성별, 부 학력, 모 학력, 부 연령, 모 연령, 부 직업, 모 직업 등 8문항과 학업 성적, 용돈 만족도, 친구관계 만족도, 부모와의 친밀도 등 4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은 가족의 건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건강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유형에 초점을 두고 가족 모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영주(2004)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요인 분석하여 4개 영역에 27문항을 추출한 이선정(200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의 건강성은 '가족존중 및 애정'에 대한 12문항,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에 대한 6문항, '의사소통 및 유대감'에 대한 5문항, '재정적 안정'에 대한 4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 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가족존중 및 애정'이 .95,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이 .87, '의사소통 및 유대감'은 .87, '재정적 안정'은 .88, '가족건강성 전체'는 .96이었다.

3) 자아개념

자아개념이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이나 느낌이며,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이전 연구들(김기정, 1984; 이훈진, 1997)이 사용한 도구를 토대로 임수진(2002)이 재구성한 자아개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임수진(2002)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능력적, 가정적, 사회적, 성격적 자아개념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적 자아개념을 가족적 자아개념으로, 성격적 자아개념은 정서적 자아개념으로 각각 명명하여 '신체적 자아'에 대한 5문항, '능력적 자아'에 대한 3문항, '가족적 자아'에 대한 3문항, '사회적 자아'에 대한 4문항, '정서적 자아'에 대한 5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 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점수가 낮을수록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것으로 평가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신체적 자아'는 .84, '능력적 자아'는 .76, '가족적 자아'는 .90, '사회적 자아'는 .89, '정서적 자아'는 .87, '자아개념 전체'는 .93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21.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아개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배경변인과 가족건강성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개념의 일반적인 경향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개념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가족건강성은 '가족존중 및 애정'이 3.94,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이 3.69, '의사소통 및 유대감'이 3.55, '재정적 안정'이 4.02, '가족건강성 전체'는 3.82로 중간값(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가족건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김윤경(2008), 김현주(2009), 이국화(2012), 최유리(2013), 현정미(2013)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특히 가족건강성 중 재정적 안정이 가장 높았고, 의사소통 및 유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유리(2013)와 현정미(201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많아 가정에서 의사소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및 유대감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이 인식한 자아개념을 살펴보면, '신체적 자아'가 3.31, '능력적 자아'가 3.18, '가족적 자아'가 4.05, '사회적 자아'가 3.60, '정서적 자아'가 3.65, '자아개념 전체'가 3.55로 모두 중간값(3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청소년들이 인식한 자아개념 중 가족적 자아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능력적 자아를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가족적 자아는 가족 구성원들과 화목하고 원만한 상호작용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감정(김갑숙, 전영숙, 2009; 이선애, 2007)을 의미하는데 가족적 자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건강한 가족

생활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능력적 자아는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서 가지는 지각이나 신념으로 학생이 학습과제나 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자신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느낌을 의미(임수진, 2002)하며, 능력적 자아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과중한 입시 위주의 경쟁의 영향으로 보여 지므로 이에 대한 지도가 요망된다.

〈표 2〉 가족건강성과 자아개념의 일반적 경향

변인		M	SD
가족 건강성	가족존중 및 애정	3.94	.36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3.69	.36
	의사소통 및 유대감	3.55	.44
	재정적 안정	4.02	.38
	전체	3.82	.33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	3.31	.38
	능력적 자아	3.18	.43
	가족적 자아	4.05	.42
	사회적 자아	3.60	.41
	정서적 자아	3.65	.39
	전체	3.55	.32

2. 배경변인 및 가족건강성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

청소년이 인식한 가족건강성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에 앞서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배경변인과 가족건강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부연령($r=.10, p<.05$), 학업성적($r=.25, p<.001$), 용돈만족도($r=.12, p<.001$), 친구만족도($r=.45, p<.001$), 부모와의 친밀도($r=.30, p<.001$), 가족존중 및 애정($r=.58, p<.001$),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r=.62, p<.001$), 의사소통 및 유대감($r=.55, p<.001$), 재정적 안정($r=.53, p<.001$)이 자아개념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중심으로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표 3〉 배경변인, 가족건강성과 자아개념 간 상관관계

변인		자아개념
배경 변인	학년	-.02
	성별	-.08
	부학력	.08
	모학력	.01
	부연령	.10*
	모연령	.05
	학업성적	.25***
	용돈 만족도	.12***
	친구관계 만족도	.45***
가족 건강성	부모와의 친밀도	.30***
	가족존중 및 애정	.58***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62***
	의사소통 및 유대감	.55***
	재정적 안정	.53***

* $p<.05$, *** $p<.001$

회귀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계수와 DW (Durbin Watson) 계수를 조사하였으며, VIF는 각각 1.02~3.65로 나타나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성선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DW 계수도 1.85로 2에 가까워 잔차 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가정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표 4〉와 같이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beta=.28, p<.001$), 친구관계 만족도($\beta=.27, p<.001$), 재정적 안정($\beta=.17, p<.001$), 학업성적($\beta=.13, p<.001$), 의사소통 및 유대감($\beta=.11, p<.05$), 부 연령($\beta=.10, p<.01$)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자아개념을 54% 설명해주고 있다. 즉,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에 만족할수록, 재정적 안정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의사소통 및 유대감이 높을수록, 부 연령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 간에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이 높은 경우의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자신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아개념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학업능력에 만족하는 경우 자신감의 형성으로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며, 부의 연령이 높은 경우, 가정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가는 시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생활만족도가 높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친구 만족도가 영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친구관계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자신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아개념이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청소년은 가족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수입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경우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며 미래의 일에 대하여 대비가 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정적 안정감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자신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아개념이 높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중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찾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회 제공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간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자신을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인성 및 적응력 행동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신미숙, 2010)와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가족 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며 상호간 문제해결을 잘하는 등 중학생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이 높은 경우 성취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현정미, 2013)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이 잘 이루어지고 친구 관계에 만족하며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가족 간 의사소통을 잘 하는 등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이 높은 경우 자신의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표 4〉 배경변인 및 가족건강성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

변인		B	β	VIF
배경변인	부 연령	.14	.10**	1.02
	학업 성적	.18	.13***	1.07
	용돈 만족도	-.04	-.06	1.13
	친구관계 만족도	.23	.27***	1.12
	부모와의 친밀도	.00	.01	1.38
가족 건강성	가족존중 및 애정	.08	.09	3.65
	역할공유및문제해결력	.25	.28***	3.21
	의사소통 및 유대감	.08	.11**	2.51
	재정적 안정	.15	.17***	1.82
F		61.24***		
R ²		.54		
Durbin-Watson		1.85		

** p<.01, *** p<.001, dummy variabls: 학업성적(0-하, 1-중, 상)

V.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청소년 발달의 중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자아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및 가족건강성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방향 모색과 가정과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인식은 가족존중 및 애정,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재정적 안정에 비해 의사소통 및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이 경쟁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과도한 학업 부담과 학교 후 늦게까지 이루어지는 학원 수강으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나 학원 등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 가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가족 간 의사소통의 기회가 적고 유대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이 드러난 결과이다. 그러나 의사소통 및 유대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족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기획, 홍보하여 가족들을 참여시키고, 가족 단위로 종교 활동이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함께 하도록 한다. 가족 내에서는 생일이나 기념일 등 가족사랑 의례를 많이 만들어 넘으로써 가족 간 의사소통과 유대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은 자아개념 중 능력적 자아를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청소년기 중 특히 중학교 시기가 독립적이고 자아를 엮매여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보여지며 학업 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확립함으로써 능력적 자아를 높일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는 자녀가 지닌 다방면의 가능성을 지지해 주고, 학교와 사회는 청소년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들을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가족건강성은 주요한 영향 변인이었다. 가족건강성 중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및 유대감', '재정적 안정'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역할공유 및 문제해결력'은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가족 내에서 역할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자아개념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청소년기가 되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쉬운데 의도적으로 가족의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 자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자녀가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가족원들이 함께 해결하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넷째, 청소년의 자아개념에는 학업성취율이나 친구만족도와 같은 학교생활 관련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율과 친구와의 관계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가족관련 변인들과 학교생활 관련 변인들이 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족 혹

은 학교 어느 한 곳의 노력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학교가 통합적으로 청소년들을 배려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 방법에서 편의 표집을 했으며, 전라남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무선표집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의 대상이 중학교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못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배경변인과 가족건강성,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발달단계 별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배경변인, 가족건강성, 자아개념을 질문지법을 통해 조사하여 양적조사로서의 한계를 지니므로 심층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과 같은 질적조사 방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주 (2011). 청소년 자아개념 변화와 지역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희경 (2005).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93-102.
- 권대회, 오윤자 (2004).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15-127.
- 김갑숙, 전영숙 (2009). 청소년의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4(4), 79-94.
- 김기정 (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선 (2013). 자원봉사활동 특성,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하남시를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연(2006). 중학생의 가정환경과 자아개념 및 학업

- 성취도와와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경 (200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혜 (2013). 대상화요인이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주 (2009). 청소년들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 (199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영자 (2008).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진해 (2009).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진희, 김안국 (2005). 가정환경, 자아개념, 자기학습량과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385-409.
- 송수지, 남궁지영, 김정민 (201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양상 분석. *인간발달연구*, **19(1)**, 215-218.
- 신나나 (2000). 부모-자녀 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과 청소년의 자아개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숙 (2010). 부모의 양육태도가 의사소통 및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유영주 (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21-134.
- 유미희 (2010).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아개념과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국화 (2012).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혜 (2002). 시설보호 형태에 따른 보호청소년의 자아개념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애 (2007). 가족구조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청소년 자아 및 심리적 변인.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2(1)**, 83-103.
- 이선정 (2009). 중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따른 미래 부모 역할 인식. *한국생활과학회지*, **18(2)**, 301-311.
- 이은아 (2014).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수진 (2002).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자아개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아 (2005).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병찬 (2002). 학습우수아와 학습부진아의 자아개념 비교 분석.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지영 (2011). 청소년의 기질, 가족건강성,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리 (2013).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리, 신효식, 이선정 (2014). 남녀 중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자아효능감의 관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1)**, 69-80.
- 현정미 (2013). 중학생이 인식한 자아존중감, 가족건강성과 성취동기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7(2)**, 241-263.